

EC 정보활동의 구조 : 정보정책수행의 매카니즘

구 자 영

목 차	
서 언	IV. 정보하부구조의 요체
I. 유럽단일화의 배경	1. EC 중앙출판부
II. EC 정보활동의 주체: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2. 정보생산조정체제
III. EC 정보활동의 주변기구	3. 정보봉사체제
	결 론

서 언

1992년의 유럽통합은 근년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주요관심사가 되어 왔다. 서유럽의 핵심세력을 이루는 12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공간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1992년말에 완성되도록 예정된 유럽단일시장안은 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는 무역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 기술적, 조세상의 걸림들을 제거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 및 자본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세계 경제에 끼칠 충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권에 거주하는 인구 약 3억4천만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그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단일시장의 실현을 기점으로 경제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과학기술등의 제 영역과 관련된 법제정이 국가단위보다는 통합된 유럽의 통치권 관할로 이행될 전망이다. 현재 EC는 기구 창설 초기로부터 목표되었던 새로운 유럽연합국가로 발돋

움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유럽단일시장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고도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기존 조직의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계속되어 왔다. 이제 통합된 유럽은 정치, 경제의 지도력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시장의 통합과정을 지켜보는 외부 통상국들은 기대와 우려의 엇갈림속에서 EC에 관한 정보접근과 수집을 꾀하고 있다. 냉엄한 국제경쟁속에서 상호 유익한 통상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교역상대국 사이에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EC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와 정보원의 확보로 시작될 수 있다. EC의 정치경제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량의 정보는 EC 자체와 회원국은 물론 제3국의 정부, 경제계, 학계, 법조계, 국제기구에 걸쳐 폭넓은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법률, 경제 및 사회통계, 과학기술 연구자료, 개발계획안, 각종 보고서류 등에 관한 정보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C의 기능과 조직, 정책, 사업계획,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보의 생산이 크게 신장되었다. EC의 정보는 EC의 주요기구를 비롯하여 회원국의 정부부서, 무역협회, 은행, 상담회사, 전문협회, 상업출판사 등 다양한 근원에서 생산된다. 형태에 있어서도 책, 정기간행물, 뉴스레터 등의 인쇄물,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최근에 개발된 각종 전자매체가 동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EC정보는 다양한 주제, 생산원, 종류, 형태를 가지는 동시에 여러 계층의 정보수요를 위하여 다양한 수준으로도 생산되므로 적절한 정보의 선정과 접근은 상당한 전문성과 체계적 노력을 요한다. 특히 EC기구 자체의 확대와 기능변천으로 정보정책이 변동되는 점, 회원국의 언어별 자료생산, EC기구의 복잡한 정보생산 및 보급체제와 같은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문제가 더욱 심화된다.

실제로 EC의 정보활동은 EC정책수행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최근의 구체적 사례로 1989년에 결의된 European Community's Enterprise Policy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uropean Information Centers(EIC)로 구성된 정보조직망을 새로이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¹⁾ EIC는 EC가 총력을 기울여온 단일 시장화의 궁극적 성공

1) Mike Coyne, "European Information Centers & EC Enterprise Policy" *Aslib Proceedings* 44(May 1992), 213

을 목표로 회원국가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고안된 정보봉사조직이며 내용적으로 EC정보제공, 전문적 상담 및 자문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고 EC가 운영하는 보다 방대한 정보체제의 일부를 이룬다.

본고는 EC 자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목적을 둔다. EC의 특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정보접근은 정보정책의 수립과 수행의 과정을 비롯하여 정보활동을 직접 진행하도록 고안된 일선 하부구조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EC는 유럽통합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정부이므로 그 기능과 조직이 필요에 따라 계속 변천되어 왔을 뿐아니라 다국가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복잡한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형성과정에 있어도 단일조직으로 시작한 여타의 국제기구와는 달리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구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EC 소속기구들은 법과 행정상의 독립된 재체로서 활약하고 있다. 따라서 EC소속의 주요조직은 자체의 정보정책과 활동계획을 가지며 독립된 예산을 가진다. EC가 생산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조직의 기능 이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외부 보급과는 무관하게 처리된다. EC정보의 접근은 정보의 생산 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상의 변동과 정보활동의 기본구조를 적절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비로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 유럽단일화의 배경

오늘의 EC는 이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1951년에 독일, 불란서, 벨기, 이태리, 화란, 룩셈부르크의 6개국은 Treaty of Paris(파리조약)에 공동서명함으로써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유럽 석탄철강기구)를 탄생시켰다. 이어서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57년에는 2종의 조약이 첨가되었다. 이들은 Treaties in Rome (로마조약)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유럽공동시장)와 European Energy Community (Euratom, 유럽원자력기구)의 창설을 초래하였다. 이들 3기구는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해오다가 1967년에 Merger Treaty (합병조약)를 체결함으로써 European Communities(유럽공동체)라고 명명된

하나의 행정체제로 재편성되었다. 기존의 기구가 각각 독립된 법적 근거를 유지하면서 행정 업무만을 일원화하였으므로 EC는 복합체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EC는 1973년에 영국을 비롯하여 아일랜드와 덴마크가 회원국으로 가담하므로써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1981년에 그리스, 1984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영입되어 현재 12개국의 방대한 지역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EC의 획기적 발전은 1986년에 전 회원국이 인준한 Single European Act (SEA, 단일유럽법안) 이래로 집요하게 추구되어온 단일시장화의 노력에 근거한다. SEA의 최종목표는 1992년말까지 통합된 하나의 내부시장을 완성시키는데 두고 있다. SEA 인준 이후로 나타난 중대한 변화로는 유럽단일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요의 결기구의 의사결정과정을 쇄신한 것,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규정을 개별 회원국의 국법으로 채택하도록 한 것, 새로운 활동분야로 경제 및 통화 정책을 위한 협력, 공동의외정책 모색,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과 환경보호노력, 연구 및 기술개발정책 협력 등을 들 수 있다.²⁾ SEA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추진사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EC의 집단적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SEA는 EC회원국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유럽통합에 원동력이 되었다.

SEA는 1951년에 결성된 최초의 공동체 설립이래 자주 인용되어온 유럽합중국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구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역공동체와 개별회원국간의 이해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괴리로 인하여 EC의 목표달성에 적지않은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유럽통합은 대화와 연구의 주제로만 남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한때 있었다. 실제로 EC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관세동맹으로써의 역할만이 주된 업적이었다. 1980년대의 중반부터 EC강화론이 대두되었는데 그 배경은 미국과 일본같은 경제 강대국에 비하여 유럽의 분산된 경제, 사회, 정치적 환경이 경쟁력 약세를 조장한다는 점에 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84년에 EC의 중앙 행정조직인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CEC)는 EC의 내부시장 통합의 전망을 연구하도록 위임되었고 1985년에는 *White Paper* 가 발표

2) *Oxford Encyclopaedia of European Community Law*. V. 1 *International Law* ed. A. G. Toth, (Oxford : Clarendon Press, 1990), 4480-483

되었다.³⁾ 이 보고서의 골자는 시장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물리적, 기술적, 조세상의 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 사이에 상품, 서비스, 자본유통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경제공간을 1992년 말까지 탄생시킨다는 것과 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조치와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SEA는 바로 이 *White Paper* 의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킨 조약이다.

SEA를 성립시키고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White Paper* 의 취지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몇몇 전략자료가 기획생산되었다. 이들 자료가 EC행정의 중심부인 CEC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2권으로된 *Europe without Frontiers : Toward a Large Internal Market* 와 *Europe without Frontiers :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는 *White Paper* 에서 명시된 주요 계획을 실천에 옮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내부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 EC가 특별히 위임한 Cecchini Committee의 대규모 연구보고서인 *Research on the Cost of Non-Europe* 은 산만한 구주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White Paper* 에서 지적한 각종 제약조건 의 철폐가 가져올 혜택을 논하고 있다.⁵⁾ Cecchini Committee의 또 다른 업적인 *1992 : the European Challenge* 는 단일 시장의 실패가 가져올 경제적 기술적 손실과 사회적 패배감을 예고하였다.⁶⁾ 이들과는 방향이 다소 다른 지원자료로 시장단일화에 관한 회원국 자체의 의견조사 결과인 *Eurobarometer :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도 있다.⁷⁾ 또한 1992년으로 예정된 유럽통합을 추진, 계몽 및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EC Commission 발행의 *European Economy*,

- 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 White Paper from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EC, 1985)
- 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 without Frontiers-Toward a Large Internal Market", European File 17 (Nov, 198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 without Frontiers-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European Documentation 2 (1989)
- 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search on the Cost of Non-Europe : Basic Findings. 17 Vols. (Luxembourg :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C, 1988-)
- 6) Paolo Cecchini et al. 1992 : the European Challenge, the Benefit of the Single Market. (Brookfield, Vermont : Gower, 1988)
- 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barometer :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30 (December 1988)

Social Europe,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와 같은 정기간행물안에서 오랫동안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EC는 유럽 단일시장화의 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므로써 정보활동의 효과와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제기구는 대민봉사의 일환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전통을 가지는데 EC도 설립 초기로부터 그 목표, 기능, 사업계획 등을 회원국의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였다. 정보활동은 EC와 같은 거대 조직을 움직이는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동시에 기구의 전모를 알리는 홍보적 기능과 정책 목표달성을 가능케하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한다. EC를 구성하는 주요기구와 부속조직 및 부설기구는 예외없이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정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EC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조직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최고행정집행부), European Parliament(유럽의회), Council of Ministers(각료회의), European Court of Justice(유럽재판소), Court of Auditors(감사원),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경제사회위원회)이다. 이 중에서 Commission, Council of Ministers, European Parliament의 3기구는 EC전반에 영향을 주는 입법, 행정 및 정치기능을 중복 내지는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다. 부설조직의 범위는 Consultative Committee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uropean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European Investment Bank,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는 군소기구를 포함한다.

II. EC정보활동의 주체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CE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하 CEC로 통칭함)는 EC 전체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생산, 보급, 관리하는 중심부의 기능을 가진다. CEC의 정보정책 수립과 수행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구의 기능과 조직구조의 검토는 우선의

과제가 된다.⁹⁾ CEC의 주된 역할은 EC법률을 시안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며 정해진 정책의 수행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또 EC 설립조약을 포함하는 여러 조약의 내용이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일종의 수호자적 역할과 더불어 회원국가의 이해관계를 떠나 EC의 대변자적 기능도 가진다.⁹⁾ 임원진은 회원국가들의 동의를 거쳐 선출된 4년의 임기를 가진 'Commissioners' 로 구성된다. 임원의 수는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되었는데 원칙적으로 한 회원국에서 한명의 임원을 파견하게 되어있고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스페인과 같이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2명까지 파견한다. 일단 EC Commissioner로 임명되면 자국의 정부와는 관계없이 EC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임원마다 특유의 독자적 전문 영역을 담당하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임원단의 공동 명의로 실천한다. CEC에는 'Eurocrats' 라고 알려진 영구적 직원도 상당수 있다.

1987년 집계에 따르면 직원은 전부 15,055명이며 이것은 Ispra에 위치한 Joint Research Center에서 근무하는 3,053명을 포함한 숫자이다.¹⁰⁾ CEC의 주요 업무는 Brussels와 Luxembourg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계 여러 지역에 설치한 'information offices' 와 'external delegations' 에 수많은 임원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다. CEC는 Secretariat-General, Legal Service, Spokesman's Service, Joint Interpreting and Conference Service, Statistical Office를 비롯하여 27개의 전문 영역 활동부서를 가지고 있다.

CEC는 EC 입법의 유일한 공식 시안자 및 정책 수행자로서 EC에 관련된 각종 형태의 정보를 대량 발생시킬뿐 아니라 EC의 목표와 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므로 다양한 정보활동 조직을 발전시켜 왔다. CEC의 정보정책은 정보생산과 보급을 위하여 발전시킨 체계적 하부구조와 다수의 전문봉사활동조직

-
- 8) CEC에서 간행하는: *Directory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부정기 간행물)안에 각 부서별 활동내역, 직원의 명세, 대표단 명단, 정보활동 사무실 명단등이 게재되어 있다.
- 9) Giancarlo Pau, "The General Information Policy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d. Michael Hopkins, *European Communities Information, Its Use and Users*. (London : Mansell, 1985), 48.
- 10) Ian Thompison, *The Document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 Guide*. (London : Mansell, 1989), 30-31.

에 반영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CEC산하의 모든 부서는 관련 정보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이것을 기록화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authorizing services' 라고 알려진 저자부서에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정보자료를 담당하는 Personnel and Administration(GDXI)부서, 대외 홍보활동을 주관하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e(GDX)부서, 과학기술정보를 총괄하는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Industries and Innovation(GDX III)부서, 각종 통계정보를 통제하는 Eurostat(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약칭)부서, 그리고 총괄적 자료생산을 담당하는 Secretariat-General의 5개 조직이다. 각 조직은 독립된 예산과 연도별 정보생산 계획을 가지는데 담당분야 안에서 계획된 자료의 저자역할을 하며, 생산의 우선권과 저작권의 상황관리, 발행빈도(연속간행물) 및 발행부수와 형식, 그리고 언어 등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¹¹⁾

CEC의 정보하부구조중에는 정보생산에 관한 통제 권한과는 무관하나 정해진 자료를 단순히 제품화하는 생산과정과 일원화된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C(OOPEC)가 있다. EC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출판부서이다. 이곳은 위에서 언급된 5개의 'authorizing services' 와 함께 EC 전반의 출판 활동을 조정하는 Consultative Committee of the Publication에 대표를 파견하여 정보생산 관련 의 기준과 계획조정 작업에도 관여한다.

CEC의 정보정책은 매년 European Parliament에 상정되는 정보 프로그램안에 명시되어 있다. 정보정책은 EC가 현재 처해있는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다양한 활동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1984년 2월에 당시의 기구장이었던 M. G. Thorn이 European Parliament에서 밝힌 주요 계획은 EC의 활성화, EC의 재충전 및 제도약안, EC의 무역대상국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관계 개선 등을 포함하였다.¹²⁾ CEC의 정보정책에는 상해적으로 이 기구가 담당하는 대내외적 책임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회원국에 대하여 강력한 EC건설의 필요성, 'European identity' (유럽동질성)와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11) *ibid.*, 34

12) Pau, *op. cit.*, 52

강조한다. 물론 당시에 주요 사회문제가 되는 인플레이, 실직자 문제, 저개발 지역의 발전방향, 환경개선, 생활 수준의 향상 등의 주제도 포함된다. 정보보급은 일반대중을 포함하나 정당, 무역협회, 교사단체, 농업기구, 소비자 단체 등과 같이 대중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 그룹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EC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EC정책에 해설에 역점을 둔다.

CEC 정보활동의 적극성은 정보정책에 관한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매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내의 공공연구소에 의뢰하여 의견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것은 CEC가 펼치는 단기계획의 효과와 정보전략의 유용성을 탐지하는 내용으로 자체 간행물인 *Eurobarometer* 안에 정기적으로 게재된다. 의견조사는 여러 관심 주제별로도 나누어 행해지며 조사 결과는 차후의 정보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또한 회원국안에 설치된 각종 정보봉사 조직은 EC에 관한 회원국 국민의 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보보급을 위하여 동원된 수단으로는 각종 인쇄 출판물을 중심으로 뉴스레터, 정기간행물, 라디오와 텔레비전등의 대중매체를 포함한다. 특히 Brussels에는 TV 프로그램과 필름제작을 지원하는 촬영과 녹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회원국에 파견된 보도 및 정보조직에서는 당해지역 주민의 수요에 합당하도록 인쇄물을 생산 보급한다. 또 전국적,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EC관련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그룹을 Brussels나 Luxembourg로 초대하는 'information visits' 도 주관한다. 최근에는 최신 정보와 데이터의 보급을 위하여 여러 종류와 수준의 전산화된 정보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EC의 정보활동은 기구의 방대한 책임영역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있다. 회원국가와 기타지역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원국가에는 크고 작은 보도정보실 (press and information office)을 다수 유지한다. 비회원국과 EC의 다른 국제

기구에는 외교사절단으로 하여금 정보활동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카라비안 연안국, 태평양 연안국, 마그레브(Maghreb) 지역등에 파견된 CEC 대표단은 외교활동과 함께 중요한 정보 기능을 이행한다.¹³⁾ CEC 대표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EC회원국의 대사관이 EC 관련 정보물을 보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CEC의 인쇄출판물은 EC가 관여하고 있는 입법활동, 정책설정, 연구개발 및 다수의 관심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981년 집계에 의하면 CEC의 출판물양은 대표적 간행물인 *Official Journal*을 제외하고도 EC 전체가 생산하는 출판고의 86%를 차지하였다.¹⁴⁾ CEC가 관할하는 방대한 출판물 활동중 Secretariat-General의 저작물은 범위와 종류에 있어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EC의 전반적 활동을 보여주는 연차보고서 *General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가 1968년 이래로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EC활동을 세목별로 요약한다.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월간) 역시 EC 소속 모든 조직의 활동을 보고해 주고 있으므로 *General Report* 를 월별로 최신성 있게 보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생산목표에 있어 전자는 European Parliament에 상정하기 위한 것이며 *Bulletin* 은 EC의 발전 상황을 일반에 홍보하는데 있다. 특히 *Bulletin* 은 여러 분야의 개별적 활동을 보고하는 'supplement series' 를 다수 가지고 있다.

또 'COM Documents' 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CEC가 생산하는 방대한 공식 문서류에 주어진 명칭이며 실제로 이런 자료가 EC 출판물중 가장 중요하고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¹⁵⁾ CEC는 EC입법의 시안자이자 정책수행자의 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공식 문서류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들 문서류는 생산초기에는 내수용으로 있다가 여러 차례 토의와 수정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 'COM Documents' 는 대별하여 법률안자료('proposals for legislation', EC관계법안

13) *ibid.*, 50-51

14) Thompson, *op. cit.*, 32

15) *ibid.*, 66

자료), 백서류('broad policy documents' , 정책조사자료), 시책보고서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 정책결과보고서류)의 3가지로 구분된다. 'COM Documents' 는 사실적 정보를 풍부하고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EC밖에서의 수요가 높다. 대다수가 외부 공개용이므로 EC 기탁도서관과 European Documentation Centers에 무료로 보급된다. 1983년 이래로는 주제별 혹은 총서별 구독신청을 받고 있어 보급의 체계화를 꾀하고 있다. CEC의 사무국이 발행하는 또 다른 관심자료는 이 기구의 부서별로 생산하는 총서류('documentation categorization')이다. 자료의 주제와 형식이 다양하며 한정된 언어자료 및 임시인쇄물 형태를 갖추고 있다. 대다수의 자료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 평가자료 및 행정기능의 이행과정에서 외부 연구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위탁 연구한 자료들이다.

Ⅲ. EC 정보활동의 주변기구

1. Council of Ministers

이 기구는 EC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 의결기구인 동시에 회원국가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시켜주는 상설조직이다. 회의 주제에 따라 회원국에서는 해당 분야의 현직 장관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정치외교문제와 관련된 회의에서는 외무부 장관이, 농업문제를 다루는 회의 경우에는 농업담당장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회장직은 각 회원국이 돌아가며 6개월간 맡도록 되어 있다. 회의는 Brussels과 Luxembourg에서 주로 개최되나 회장국가에서도 자주 주관한다. 이 기구는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Coreper)라고 알려진 회원국가의 고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룹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 특히 EC의 여러 기구간의 조정 역할 및 의사일정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Council of Ministers와는 성질이 다른 유사한 명칭의 European Council이 있는데 이것은 EC 회원국가의 원수들과 외무부장관들로 이루어지고 연 3회의 정기적 모임을 갖는 EC 정상회담기구이다. 1974년 이래로 존속해 왔고 EC의 결속에 관련된 문제에 역점을 두어 왔는데 현재에는 EC의 통합된 조직활동 일부가 되어 있어

때때로 Council of Ministers와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Council of Ministers의 주요 정보활동은 사무국 소속의 Press and Information Office에서 이행한다. 각료 회의 직후에 보도물을 생산하여 보도진과 회원국가에 보급한다. 또 회의에서 채택된 중요한 결의사항과 그 배경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회원국의 대사관과 정부부서 그리고 CEC부설의 정보기관에 골고루 보급하여 일반의 문의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들 자료에 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활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기구의 주요 활동내용은 궁극적으로 EC의 관보인 *Official Journal*과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와 같은 정기간행물안에 보다 상세하게 실린다. 이 기구가 의결하는 법안과 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단행본으로도 보급되고 있다. 연간보고서인 *Review of the Council's Work, Annual Report of the ACP-EEC Council of Ministers*를 비롯하여 이 기구가 관여하는 EC입법활동, 교육정책 및 특허출원과 같은 주제를 다룬 자료들이 다수 있다.

2. European Parliament(EP)

이 기구는 구주공동체의 민주적 양심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문과 감독기능을 맡고 있으나 입법활동을 위주로 하는 통념적 의회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CEC와 Council of Ministers는 대다수의 안전과 정책문제에 관하여 이 기구의 자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기구는 EC 소속의 다른 주요 기구의 정책에 관하여 질의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Commissioners' 그룹을 해산시킬수도 있으며 인권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자체적 발의안을 내어 놓기도 한 바 있다.¹⁷⁾ 또 대외적으로 EC와 통상 관계를 가진 나라의 의원 대표들과의 회의 소집을 주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구의 중추적 역할은 EC 예산을 조정 심의하는 것이다.

1979년 이전까지는 회원국 정부가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16) *ibid.*, 205

17) Anthony Reid, "European Parliament Information", ed. Michael Hopkins, *op. cit.*, 77

회원국안에서 일반 투표로써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회원국 증가에 따라 의석이 증가되었는데 현재 520여석을 확보하고 있다. 의회활동은 Brussels, Luxembourg, Strasbourg 3곳에 분산되어 이행되므로 정보보급과 접근에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기구의 주요 조직은 1986년 이래로 사무국을 비롯하여 6개의 독립된 행정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기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보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Thompson 조사에 의하면 1971년에 281종의 문서(working documents)를 생산했으나 1978년에는 841종으로 그리고 1985년에 와서는 2,269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런 현상은 비단 문서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보자료 생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⁸⁾ 이 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공식 자료의 생산과 보급은 EC의 관보인 *Official Journal : Annex : Debat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안에 실린다. 이 기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총서류로는 *European Parliament Working/Session Documents*(다수의 subseries와 상임 이사회의 보고서들로 구성됨), *Bulletin of European Parliament, Minutes of Proceedings*(*Official Journal, C Series*로 생산됨) 등이 있다. EP가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는 전통적 인쇄매개체 외에도 일반에 공개보급되고 있는 EC 법률전반을 다루는 CELEX, EURODICAUTOM, 상임위원회 활동과 임시법률안을 알아볼 수 있는 SCAD와 같은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근가능하다.

특히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는 EP의 전문 영역별 연구조직으로서 해당분야의 신속하고도 권위있는 정보를 위에서 지적한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총서류안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Research and Documentation Papers*(다양한 분야별 연구보고서 총서), *Progress towards European Integration*(연차보고서), *Fact Sheets o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Activities of the European Community*(EC와 EP의 업적 보고서)를 포함한 다수의 출판물을 생산한다.

European Parliament는 일반의 인식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에 면밀한

18) Thompson, op. cit., 214

정보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¹⁹⁾ 이 정책안의 골자는 EP의 주요 활동을 EC전역에 적절히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추적 책임은 Directorate-General for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이 맡고 있다. 정보활동은 일반 대중과 정보매체에 대한 정보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회원국 수도안에 EP Information Offices를 설치하였다. EP Information Offices는 CEC가 파견한 Information Offices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별도의 임무를 띄고 있다. 즉, EP업무(특히 산업활동, 자원봉사조직, 전문보도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제공, EP에 관하여 포스타, 전시회, 슬라이드 및 책자를 통한 일반대중의 교육업무, Strasbourg와 Luxembourg로 EP를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일, 대중매체와 개인접촉을 이용하여 EP에 관한 보다 폭넓은 홍보업무, EP소속의 상임이사회 활동 지원등을 포함한다.²⁰⁾ 출판활동은 비교적 지엽적으로 이행되나 *Briefing, The Week, EP News, Info, Memo* 등의 정기간행물을 비롯하여 일반 대중의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인쇄물을 포함하며 특히 회원국의 수요에 적합한 자료들이 해당 지역에서 별도로 생산 보급되고 있다.

3.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COSCO)

ECOSCO는 EC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수합하여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또한 CEC와 Council of Ministers의 입법활동에 관한 제안을 하는 자문조직체이기도 하다. 이 조직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우도 허다하나 EC내부의 영향력있는 그룹을 대표하는 공식 견해의 창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소기업관리, 환경문제, 신기술개발 등에 관한 회의를 주관하였다. 직원은 회원국가에서 임명 파견된 일반 사무직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직은 CEC나 Council of Ministers가 의뢰한 것을 농업, 산업분야, 경제와 금융, 사회와 교육 및 문화, 교통통신, 에너지, 지역과 도시개발, 공중위생과 소비자보호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며 이것을 ECOSCO

19) Reid, op. cit., 86

20) *ibid.*, 86-87

전체회의에 상정한다.²¹⁾ 제출된 것중 채택된 것은 다시 의뢰기구인 CEC와 Council of Ministers로 전달되는데 그 역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COSCO의 정보활동은 주로 조직의 활동을 홍보하는데 있다. 조직의 사무국안에는 Press, Information and Publication Division이 있어 중요한 정보활동을 관장한다. *Opinions and Reports, Annual Report, Bulletin* 등의 주요 자료들이 EC의 중앙 출판부서인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European Communities (OOPEC)에 위탁생산 및 보급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위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ECOSCO자체가 생산하는 참고도서가 다수 있으며 상업출판사와의 공동생산자료들도 있다. 이 기구의 중요한 견해는 EC관보인 *Official Journal : Information and Notices (C Series)*에도 게재되어 계속 공개되고 있다.

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Court’ 라고도 알려진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격을 가진 EC의 주요 기구이다. EC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조약의 법규를 해설하고 적용하여 회원국가나 그룹들의 분쟁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임시판결을 청구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회원국 법규에 관해 어떤 종류의 압력과 간섭도 행하지 않는다. 또 EC기구간의 분쟁이나 기구와 직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취급한다. EC소속의 기구나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청취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Chambers’ 라고 알려진 소규모 회의에서 처리한다. 1986년에는 Single European Act의 결과로 Court of First Instance가 설치되어 EC직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긴급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Luxembourg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을 대표하여 12명의 재판관과 1명의 회장이 있다. 이들을 보조하는 ‘advocaters-general’ 로 알려진 직원이 있는데 이들은 소송의 요점을 찾아 EC법률 전체에 비추어 해결안을 모색하여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C의 다른 기구와 같이 사무국 (Registry라고 함)이 있고 이 기구 특유의 Interpretation Division, Information Office, Admin-

21) Thompson, op. cit., 228-229

istration, Library, Research and Documentation Directorate, Translation Directorate와 같은 조직이 있다.

이 기구의 가장 중요한 정보자료는 재판의 내용과 의견을 모아놓은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ECR이라고 인용되는 권위있는 총서)를 비롯하여 *Judgments or Orders of the Court and Opinions of Advocaters-General, Proceeding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재판과 의견에 관한 주간 요약집), *Digest of Case-Law Relating to the European Communities* (A-D까지의 법률총서로 가제본식 자료)등이 있다.

이 기구의 Information Office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기구의 역할, 활동, 공헌에 관한 책자를 생산하여 무상배포한다. 또한 Library Division에서도 일반책자와 참고도서를 발행한다. EC전반을 다루는 *Official Journal*(C Series : Information and Notices),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등의 자료안에 이 재판소의 활동을 요약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5. Court of Auditors

이곳에서는 EC 조직체들의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며 재정관리 상황을 보고하는 감사기능을 이행한다. 1977년에 개관하였고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12명의 임원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임원은 특정 분야의 감사활동을 담당한다. Court of Auditors가 작성하는 연차보고서와 특수보고서는 이 기구 정보활동의 대표적 산물이다. *Annual Reports Concerning the Financial Year...* 는 Court of Auditors의 활동과 업적의 총괄적 내용으로 내수를 위하여 간행된다. 이것은 EC의 관보인 *Official Journal* 에 다시 실려 널리 공개된다. *Court of Audito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는 기구의 조직, 임원의 책임영역, 간행물 목록 등을 알려주는 기구안내서로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 기구가 발생시키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부분이 EC 중앙출판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

이상에서 언급된 주요 기구이외에 EC 소속의 군소 기구들도 정해진 기능의 이행과 홍보의 목적을 위하여 상당량의 정보를 발생시키고 보급하고 있다. 예컨대

European Center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DEFOP)는 EC전반의 직업훈련과 계속교육의 진흥 및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실제있어 강좌와 세미나를 조직하며, 연구를 지원하고 견학프로그램등을 운영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출판계획과 정보유통조직망을 유지하고 있다. 1975년에 설치된 이 센터의 운영은 무역협회, 사용자협회, 정부 및 CEC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CEDEFOP의 주요 기능은 직업훈련과 교육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유럽의 여러 나라의 관련 기구나 관련 인물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Documentary Information Network를 설치하여 EC회원국가의 직업교육기구들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관련정보의 교환을 꾀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근거로 하는 정보활동의 결과로 유용한 전문 분야의 인쇄서지류가 생산되었다. 또 CEDEFOP 도서관의 설치와 더불어 직업교육분야의 자료 25,000여종을 실은 전문 목록을 탄생시켰다.²²⁾ CEDEFOP의 문헌정보활동은 기구의 연차보고서, 특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Vocational Training*, 외부 위탁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센터가 주관하는 출판물의 실제 생산과 분배업무는 EC의 중앙출판부에서 대행하고 있다.

IV. 정보하부구조의 요체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하 OOPEC으로 칭함)은 EC의 공식출판조직이다. EC의 6개 주요 기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Management Committee를 통하여 운영되는 정보 및 출판활동의 중심부이다. 봉사의 영역은 이들 기구외에 EC소속의 군소조직들에게도 확대되며 출판의뢰된 자료의 디자인, 인쇄준비, 제작 및 판매와 보급까지를 포함한다. 실제에 있어 대부분의 출판업무를 외부시설에 의존할 뿐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봉사업무로 인하여 그 기능이 단순한 출판활동보다는 생산 의뢰된 자료를 적절히 처리하여 보급을 하는 일

22) *ibid.*, 253

종의 중앙출판조정기구라고 볼 수 있다.

Luxembourg에 위치한 OOPEC은 행정과 예산의 이유로 CEC에 소속되어 있으나 EC의 6개 주요기구를 공평하게 봉사한다. 각 부서의 자료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나 비용은 자료의뢰측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주요 기구는 정보와 출판활동을 위한 개별 예산을 가지며 대표를 파견하여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EC전반의 출판활동을 기획 및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EC는 1969년에 그전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각 기구의 출판 업무를 일원화하여 현재의 중앙출판조직으로 편성하였다. EC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개별 기구의 출판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었고 동시에 출판물 자체의 질과 형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대두되었으므로 범기구적 출판 질서의 확립이 모색되었던 것이다.²³⁾

OOPEC의 설치이래로 EC자료의 생산량과 가격의 조정, 판매망 확대, 무상배포기준의 정비, 정보기술활용, 서지통정체제의 정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를 통하여 자료 생산과 보급활동에 나타난 주요 업적으로는 COM Documents, EP Reports, ESC Opinions and Reports를 비롯하여 여러 기구의 문서류에 대한 정식 구독판매를 시작하여 접근이 애매했던 문서류의 가용성을 보장한 것과 여러 기구의 자료 보급선을 일원화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체계적 서지 발행을 시도하여 출판물의 유통을 촉진시켰다. 또 1983년 이래로는 EC Depository Library Network 소속의 기탁 도서관, European Documentation Centers, European Reference Centers에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에 관한 배포관리도 책임지고 있다. EC 출판물의 저작권 등록과 기타의 출판인가권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은 이 기구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이다.

OOPEC의 주요 생산품은 크게 공식 문서류와 외부 배포용 출판물이다. 대다수의 공식문서류는 실체에 있어 EC의 주요 기구들 자체에서 편집 인쇄되므로 판매와 보급업무 정도를 대행하는 입장이다. 판매용 출판물중 가장 중요한 것은 EC의 관보인 *Official Journal*이다. 이것은 주요 기구들이 보내온 자료를 내용으로 OOPEC

23) David Perry, "The Role of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d. Michael Hopkins, op. cit., 27

자체의 편집과 인쇄과정을 통하여 직접 생산하며 보급하는 대표적 제품이다. 기타의 판매용 출판물은 대개 경우 상업 인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양은 전체 생산자료의 85%이상을 상회한다.²⁴⁾ OOEPEC의 출판기능은 EC 자료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나 범기구적 조정역할, 서지통정, 보급회로의 집중경영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OOEPEC의 한정된 기능은 EC 출판활동의 분산관리 체제에 따라 그 설립규정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²⁵⁾ 예컨대 CEC가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여러 위치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Press/Information Offices는 독립적으로 출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문제로 필요에 따라 상업출판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문서류는 관련 기구가 개별적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EC자료의 실제적 생산원은 다양하므로 결과적으로 EC자료 전체에 관한 포괄적 접근이 어려울뿐 아니라 중앙부서로서의 OOEPEC의 명칭은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 발전된 정보기술은 OOEPEC의 활동범위와 방안을 변모시키고 있다. 급증하는 출판물량의 생산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다양한 회원국언어로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의 예로 TED(Tenders Electronic Daily) database는 *Official Journal*의 일부를 9개 언어로 전문(full text)을 전달하도록 고안된 세계 최초의 온라인 일간지이다. 또 EC가 생산하는 전자매체 정보의 통정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 부서와의 협력으로 1984년에는 Eurovoc를 개발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다. Eurovoc는 EC활동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다국어 용어집이다. OOEPEC은 자체 개발품과 아울러 EC 전체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전자매체자료를 전통적 인쇄물이나 마이크로자료와 함께 판매 보급하는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현재 판매 대행하는 중요한 EC 데이터베이스에는 CELEX(법률자료집), EUROCAUTOM(다국적 과학기술용어집), COMEXT와 CRONOS(통계자료집), SCAD(EC 및 외부생산자료집), SIGLE(비도서 정

24) Walters Verheyden, "Publication Policy and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d. Michael Hopkins, op. cit., 21

25) Pery, op. cit., 31-36

보자료집), EABS (과학기술연구자료집), TED 등이 있다.

OOPEC의 가장 중요한 출판물인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EC의 중요한 법률제정과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정보원인 동시에 EC의 정보정책수립과 수행과정을 추적 연구하는데 있어 필수자료이다. EC초기에는 주요 기구별로 발행해오다가 1969년에 OOPEC이 설치되면서 하나의 관보로 일원화하여 생산보급하도록 조치되었다. EC의 주요 활동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데 주로 EC의 설립, 정책변동 및 운영에 관한 입안 과정과 법률, 비회원국가와의 협정내용, 기구별 규정과 결정안, 공공계약에 관한 세부내용, 부수적인 협정과 법률한 등이 수록된다.²⁶⁾

현재 *Official Journal*은 독립된 5개의 부분 - Legislation(L Series), Information and Notices (C Series), Supplement (S Series), Annex : the Debate of European Parliament, Index - 으로 구성되어 있다. Index (월간 및 연말누가본)를 제외한 부분이 매일 간행된다. 각 부분이 유일한 발행번호 체제를 가진다. 매호의 크기는 20에서 100여 페이지에 이르도록 다양하며 9종의 회원국언어로 생산되므로 발행 규모가 막대하다. 1982년 통계에 의하면 *Official Journal*의 총 간행이 1천9백만 여부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OOPEC의 연간 총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양이다.²⁷⁾ *Official Journal*의 내용을 검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인쇄서지류와 함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개발 이용되고 있다. 특히 *Official Journal*이 출판되는 일자의 아침 시간에 목차를 온라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황주지봉사의 개발은 수요의 시급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관보의 색인과 검색과정에 있어 Eurovoc가 적용되고 있다. 관보는 처음부터 판매품으로 생산되는데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도 가능하다.

2. 정보생산 조정체제

CEC가 생산하는 막대한 규모의 정보는 정보의 생산을 인준하는 4개부서에 의해

26) Thompson, op. cit., 11 - 15

27) *ibid.*, 12

로 정된다. 이들은 Directorate-General(DG)의 명칭을 가진 27개 주제분야 별 부서 중 DGIX, DGX, DGXIII 및 Eurostat로서 'authorizing services'의 책임을 가진다. Eurostat를 제외한 3부서는 자체 발생의 자료에 대하여 다른 관련 부서와의 유출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저차역할을 한다. 즉 각 부서는 연간자료 생산계획과 예산을 가지며 생산의뢰된 자료의 관련하여 생산의 우선순위, 저작권 문제, 생산부수, 언어, 형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보의 산출 근원과는 관계없이 CEC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이들 저차 부서의 책임하에 조정 운영되고 있다. 각 부서의 특성은 EC 정보의 규명과 접근에 영향요인이 된다.

DGIX :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이 부서는 인사관리와 총무담당의 폭넓은 업무에 관여하므로 정보생산을 위한 저차역할의 원동범위 역시 크다. 자체 생산자료의 성격을 보아도 일반 홍보류, 학술연구자료, 보고서, 문서류, EC대표도서관의 출판물, CEC 명단 등 다양하다. 실제로 DGIX 생산의 *European Documentation*은 EC의 정책과 업적에 관한 널리 알려진 홍보류 총서로서 모든 회원국 언어로 동시에 생산되며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이 총서중에는 특수 수요자 그룹을 위한 것도 있고 자료에 따라서는 편집위원 구성이 다양하도록 운영되기도 한다.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European Perspective*는 EC와 관련된 주제에 관한 외부 학자들의 위탁연구 총서이다. 우수한 필진에 의한 수준 높은 연구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된 언어로만 생산되며 판매회로에서 유통되고 있다.

DGX :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e

명칭 그대로 홍보와 일반관심사를 다루는 부서이다. 이 부서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과 기타 지역에 있어 EC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CEC의 정책을 알리는데 있다. 출판물과 시청각 자료의 생산, 전시회 조직, 정보수집을 위한 방문, 특수 고객을 위한 전문정보봉사 등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한다. Spokesman's Group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CEC의 정보정책 수행에 있어 쌍벽을 이룬

다.²⁸⁾ DGX는 타부서로부터 유래한 정보생산의뢰를 조정하는 저자역할에 더하여 홍보용소재자, 잡지, 일반간행물을 자체 생산한다. 실례로 European File 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EC의 개발 계획과 정책자료로 구성된 개괄적 내용의 총서이다. 이것은 다수의 'press and information offices' 를 통하여 무료 배포되어 넓은 지역에 잘 알려져 있다. 다른 주요 자료로는 *Eurobarometer*, *Trade Union Information Bulletin*, *Europe Information : Development*, *Europe Information : External Relations*, *University Research in European Integration* 등을 들 수 있는데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원이며 DGX의 자료배포기관 명단에 오르면 무료로 입수 할 수 있다.

DGXIII :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Industries and Innovation

이곳은 정보기술개발과 과학기술 정보유통에 주력한다. 특히 EC 여러 조직체 안팎에서 유래하는 과학기술 자료를 선정하여 발행하기 위한 저자대행 역할이 중요하다. Joint Research Center에서 생산 의뢰된 자료와 외부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위탁 연구된 결과를 포함한 막대한 과학기술 문헌정보의 생산조정을 담당한다. EC는 초창기부터 EC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필요한 연구개발에 조직적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 정보유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현재 에너지 자원관리에 있어 탁월한 연구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산업기술개발, 농업, 환경, 공중위생, 보건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DGXIII는 EC 전체의 과학기술 정보생산과 유통의 중심점으로 광범위의 활동 영역과 대내외적 영향력을 가진다.

DGXIII이 출판 대행하는 과학기술정보는 회의발표논문, 전문잡지기사 및 연구보고서류가 주종을 이룬다.²⁹⁾ 연구보고서류는 'EUR Reports' 로 분류되며 고유번호를 가진 다양한 주제의 전문연구 결과로 생산되는 자료이다. 이들은 *Euro Abstracts* 와 EABS database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다. 'EUR Reports' 는 EC의 중앙출

28) Pau, op. cit., 50

29) John M. Gibb and Edward Phillips, "Disseminating the Results of the European Community Research" ed. Michael Hopkins, op. cit 66-67

관부서인 OOPEC와 외부 상업출판사에서 간행되며 EC 자료의 정규 판매회로에서 유통된다. 한정된 회원국 언어로만 생산되는데 대다수가 영어자료이다.

DGXIII는 EC의 정보기술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장기 개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ESPRIT (European Strategic Programm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ies), FORMEX (Formalized Exchange of Electronic Publications), SPRINT (European Programme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를 개발하였으며 그 활동내용을 일반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무료배포하여 왔다. *Information Market(I'M)* 와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는 정보기술 관련의 주요 정보와 함께 DGXIII의 주요 활동내용을 제공하는 정기간행물로 무료제공되고 있다.

Eurostat

Eurostat는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OEC)의 약칭이다. Eurostat의 주요 기능은 회원 및 비회원국가로부터 통계를 수집하여 EC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지원하며 다양한 국가통계시스템을 규합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차적 기능으로 통계정보를 가공하여 보급하는 임무를 가진다. CEC의 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나 EC 전체를 봉사하며 다양한 업무를 5개 분야로 세분하여 조직하고 있다. 즉 통계정보의 처리 및 보급, 일반경제통계, 외부무역, 비회원국 및 운송통계, 에너지, 산업 및 서비스업통계, 인구, 사회, 농업통계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Eurostat가 수집 생산하는 통계자료는 EC회원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여러 지역과 개별국가의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통계생산 및 분석기법을 융합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³⁰⁾

Eurostat는 1980년대의 발전방향을 전산화에 치중하였다. 결과로 집합통계의 수집 및 처리 뿐아니라 계속되는 통계물의 증가와 보급문제의 타개에 컴퓨터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 조직체가 운영하는 전산화파일은 다양하며 대다수는 CEC의 내수용으로 되어 있으나 외부 수요에 따라 상업적 보급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컨

30) Maria Collins, "Statistical Sourc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d. Michael Hopkins, op. cit., 243-245

데 CRONOS는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비회원국의 통계데이터 및 주제별 통계를 망라적으로 축적한 EC의 대표적 통계데이터베이스이며 Euronet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또한 EC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무역통계를 다루는 COMEXT와 EC의 지역별 경제통계정보를 다루는 REGIO 역시 Euronet를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urostat의 통계정보는 온라인 접근방안 이외에 CD-ROM, 마이크로 형태, 자기테이프와 같은 매개체로도 생산되고 있으나 전통적 인쇄출판물은 광범위 보급목적에 가장 적합하므로 중심적 매체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EC의 관보인 *Official Journal* 을 제외한다면 전체 공식출판물중 25% 정도가 Eurostat 생산품이다. 1987년 한해동안 94종의 출판물이 생산되었으며 이와는 별도의 순수한 내수용 자료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를 통하여 통계정보의 광범위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통계 분석과 제공형식상의 개선이 거듭되었고 유통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Eurostat 생산자료의 판별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통계자료의 분류체계가 1985년에 보완되었다. 현재 Eurostat의 통계자료는 8개의 대주제와 6개의 총서로 대별되며 세분화된 주제와 총서로 구성되어 있다.³¹⁾

Eurostat의 제품이 가지는 포괄성과 유용성으로 인하여 그 활동에 관한 대내외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Eurostat News* 는 통계관련활동의 근황을 알리는 주된 기관지로서 최근간행물의 광고와 함께 예고서지 역할도 한다. 서지정보원으로는 *Eurostat Index* 가 극히 유용하다. 통계자료의 요어주제색인으로 간략한 내용기술을 포함한다. Eurostat는 자체생산품 진흥을 위하여 1988년 이래로 *Europe in Figures* 를 간행하고 있다. 또한 Eurostat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의 변화와 직원 명단을 포함하는 *Eurostat Directory* 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3. 정보봉사체제

EC는 기구의 기능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생산과 더불어 적절한 보급 봉사체에 있어서도 목표된 이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고안된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목표가 되는 그룹이란 그들의 용어로 'opinion multipliers' 인데 일반 대중의

31) Thompson, op. cit., 159-192

여론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대표한다. 각종 대중매체를 비롯하여 교사그룹, 무역단체, 노조그룹, 소비자단체,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기업까지를 포함한다.³²⁾ EC의 정보봉사정책은 EC의 목적, 활동 및 업적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적절한 수준과 형식으로 봉사하므로써 기구의 궁극적 목표인 유럽 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EC 정보봉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크게 3가지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은 CEC가 주관하는 Spokesman's Services, 'information offices',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EC자료 센터들이다. 모두가 CEC 관할하에서 운영되는데 CEC의 규모가 방대하여 상호연계성과 조정이 부족한채 어느 정도의 중복봉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Spokesman's Services

EC의 뉴스를 총괄하는 대변 창구로서 CEC의 직속 기구이다. 주요 봉사활동으로 Brussel에 상주하는 인가된 기자단에게 매일 뉴스와 관련 배경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DGX부서와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이행하며 정해진 기자단과 외국에 설치된 CEC 소속의 문화원과 정보실에 한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Spokesman's Services의 발행자료는 비록 외부 공개가 통제되어 있으나 주요 자료에 관한 수요는 상존한다. 예컨대 *Information Memos* 는 EC 공개문서 및 연설문의 요약과 중요시사자료를 포함하며 1년에 100회정도 발행되고 있으나 일반의 접근이 어렵다. 하나의 대안으로 영국의 일간지 *Financial Times* 는 경제분야를 비롯하여 정치, 농업, 과학기술, 지역 등 광범위의 EC 뉴스를 다루고 있으므로 유용한 자료가 된다.

Information Offices (EC 문화원)

EC의 대외적 홍보활동의 핵심이 되는 조직으로 회원국의 수도에 적어도 1개소와 필요에 따라 지방 출장소(sub-office)가 설치되어 있다. 비회원국과 국제기구에는

32) Michael Hopkins,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EC Business Information in the United Kingdom", *Aslib Proceedings* 44 (May 1992), 210

EC의 외교사절단안에 'information unit' 로 알려져 있으며 EC의 대표부가 전혀 없는 곳에는 EC 회원국의 대사관에서 대행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EC의 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EC에 관한 외부 의견을 수합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EC문화원은 파견된 국가의 정부와 사회단체들과의 접촉의 장으로 이용되며, EC의 성격, 조직과 정책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동시에 현지 대중매체와의 긴밀한 접촉을 꾀하고 EC정책에 관련되는 현지의 상황을 관계부서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³³⁾

정보활동의 종류는 홍보물의 생산과 배포, 전시회 개최, 유명인사의 방문알선 등 다양하다. 정보활동은 CEC 본부가 직접 개입하여 지원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필요에 따라 파견지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London Office of the Commission은 좋은 사례가 된다.³⁴⁾ 영국이 1973년에 EC 회원이 되면서 그전까지 EC 대표단으로 있던 것이 EC문화원으로 승격되었다. 문화원의 주요 업무는 영국 국민에게 EC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요한 분야별-대중매체, 취업기관, 무역단체, 소비자그룹, 여성기구, 교육기관-전담봉사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일반의 정보요구를 대처하기 위하여 일선대민봉사 부서인 'information unit' 이 있다. 이 부서는 'question and answer service' 를 비롯하여 각종 정보물 봉사를 하는데 이 목적을 위하여 EC간행물로 구성된 도서실과 문서류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하는 'data-room' 도 마련되어 있다.

London Office는 EC 여러 기구의 뉴스를 조속히 입수하여 분석하며 뉴스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매주 CEC의 간부가 파견되어 당면문제에 관하여 근황 설명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홍보물로 잘 알려진 *Europe* 은 1년에 10회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EC의 정책과 그것이 영국에 주는 영향을 알린다. 기타의 홍보물을 여러 종류 추가 생산한다. 교육용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며 사진보관실을 두어 일반에게 대여하기도 한다. London Office는 영국내에 설치된 다른 지역 출장소와 상호보완의 관계에서 활동한다.

33) Pau, op. cit., 50-51

34) *ibid.*, 51-53

EC자료센터

EC는 유럽통합에 관한 일반 대중과 학계의 관심을 자극하고 정보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의 도서관 정보체제를 운영한다.³⁵⁾ EC창설 초기로부터 시작된 기탁도서관 제도에 따라 회원국과 비회원국내의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지정하여 EC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에게 열람봉사하도록 조치한다. 1960년대에 들어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European Documentation Centers를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내 설치하여 기탁도서관과 유사한 장서와 운영방식으로 학계에 대한 정보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1977년 이후로는 학부 수준의 유럽 연구를 지원하는 'mini-centers'로서 기초적인 EC장서만을 갖추도록 하는 European Reference Centers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90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정보수요를 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Euro Info Centers'의 조직망을 새로 시작하였다.

EC기구자체의 필요에 따라 부설 도서관조직을 가진다. 그중 Commission Library는 1974년에 초기의 기구들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여 현재는 EC를 비롯하여 주요 국제기구와 여러나라에서 수집된 연구장서로 성장한 EC의 대표 도서관이다.³⁶⁾ 유럽통합에 관한 유일한 규모와 내용의 장서를 가지고 내부 이용자와 더불어 학계와 타분야의 연구인을 폭넓게 봉사한다. 또한 CEC소속의 전문부서 자료실들로 구성된 도서관 조직망을 운영하여 내부적으로 협력활동을 펴하고 있다. European Documentation Centers와 European Reference Centers를 관할하는 DGX부서와 기탁도서관 장서관리를 운영하는 OOPEC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도서관 외부의 정보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

35) 구자영, "국제기구자료의 활용을 조정하는 지적접근과 물리적 가용성", 창립 30주년기념 학술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1989), 31-33

36) Eric Gaskell, "The Library and Documentation Services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d. Michael Hopkins, op.cit., 91

결 론

EC 소속의 주요기구인 EC의 지상목표인 유럽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생산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각 기구별로 독립된 정보정책, 예산과 프로그램을 가지며 동시에 EC전반의 정보활동이 집중적으로 기획 및 수행되고 있어 이중체제를 이룬다. EC자체의 성장과 변화로 인하여 정보활동의 규모와 양상이 계속 변동되므로 기구의 움직임은 정보접근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EC는 매년 상당량의 출판물을 비롯하여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새로운 전자매체자료를 생산하여 무료배포와 판매조직망을 통하여 보급한다. 특히 EC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현저해지는 신속한 정보접근의 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해 왔으므로 방대한 전산 정보체제를 보유하고 있다.³⁷⁾ 주제의 범위는 EC활동 전체를 포함하나 설립초기로부터 강조되었던 경제, 사회, 법률,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러 교육, 환경, 과학기술분야를 폭넓게 포함한다. EC가 생산하는 다양한 주제의 정보는 기구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순수 행정자료,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대민홍보자료, 전문연구진과 실무자에게 유용한 연구자료로 구성된다. 9개 공식언어로 생산되는 자료도 상당량을 차지하여 가격, 시차, 재고의 문제를 제기한다. EC정보의 주요 이용자그룹은 EC관계 직원,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정부, 국제기구, 경제, 산업계의 실무자, 학계를 포함한다.

EC 정보활동의 주체는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CEC)이다. 이 기구는 EC의 주요 정책을 시안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EC정책을 외부에 알리고 설명할 법적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정보정책의 결정과 수행을 담당하는 정보하부구조를 개발하였다. 현재 EC전체를 대표하는 정보활동을 기획 및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영역에 따라 정보정책설정, 정보생산조정, 정보봉사체제로 구분되며 여기에 더하여 중앙출판기구가 추가된다.

CEC는 매년 European Parliament에 당해의 정보프로그램을 상정하여 승인을 얻도

37) Terry Hanson, "A Survey of European Communities Databases", *Aslib Proceedings* 42(June 1990), 171-187

록 되어 있고 이것이 EC정보정책의 주요 테두리를 이룬다. 정보정책의 내용은 당시의 관심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적 정책은 EC의 목표, 활동, 업적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적절한 수준과 형태로 봉사하는 것이다.

CEC에서 주관하는 정보정책은 편리상 문헌정보활동과 대외홍보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문헌정보는 EC 정보물의 핵심을 이룬다. EC소속의 기구들로부터 유래한 자료의 생산과 보급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CEC는 범기구 단위의 Consultative Committee on Publication을 운영하고, 4개의 저자부서를 위임하여 의뢰된 자료생산을 결정하도록 하며, 출판의 구심점으로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European Communities를 두고 있다. 문헌정보의 생산은 CEC의 직접적인 관할 밖에서도 허용된다. 세계 여러지역에 파견된 EC 문화원에서 봉사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알맞도록 고안된 정보의 생산과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상업출판사와의 합작이나 외부출판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구의 내수용 문서류는 기구별로 생산 및 보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EC의 문헌정보활동에는 집중체제와 분산체제가 공존하고 있다.

CEC의 대외홍보활동은 다양한 근원에서 생산된 홍보자료의 배포를 비롯하여 기구를 대변하는 Spokesman's Office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의 운영과 보도자료 발행,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파견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제작단에 대한 시설지원, 전국 혹은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와 전시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등을 포함한다. 또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도급 인사들을 초빙하여 최신 정보를 주지시키는 노력도 계속한다. 또한 EC 정보의 폭 넓은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지역에 EC문화원을 설치하고 EC 정보자료와 전문가를 두어 봉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지의 정보봉사활동과 더불어 당시의 주요 관심사와 EC 전반에 관한 인식 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C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반영구적 조직으로 EC기탁도서관, European Documentation Centers, European Reference Centers, European Information Centers와 같은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EC 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조정하는 기존의 복잡한 체제와 계속되는 정보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EC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하나의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EC 전기구의 움직임과 정책, 정보정책과 정보하부구조, 정보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요인, EC 정보봉사조직에 관하여 폭넓은 체계적 접근 노력과 함께 지속적이고도 신속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보조 장치로는 다양한 형식의 서지도구를 비롯하여 EC자체가 생산하는 기구조직, 기능, 정책 및 정보활동에 관한 정기간행물, 총서류, 현황주지물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EC 정보전문가의 모임으로 알려진 European Information Association(EIA, 전신은 Association of EDC Librarians로 알려짐.)이 주관하는 회의 및 기타 활동 관련 자료를 통하여 EC 정보접근의 경험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다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Information Activities of European Communities : Mechanism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Policies.

Abstract

Jayoung Koo

The present study aims at a systematic access to EC information. EC information is the outcome of the complex organizations, the continuous changes in functions and the subsequent changes in policies. An attempt for an effective approach to the information requires the examination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changes, the processes involved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policies, and the infrastructure for information.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major organizations of EC have been examined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The Commission is the EC institution from which the majority of the EC's documentation originates. The information functions of the Commission have been studied in such categories as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uthorizing ser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to the public.